

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,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

기사입력 2023-07-17 13:58:55

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업계 현안 논의



(왼쪽 2번째)최태진 서울시회장이 (가운데)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/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공

[대한경제=김희용 기자]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4일 최태진 서울시회장이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방문해 서울지역 건설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.

최 회장은 서울시회장 취임 인사차 방문한 이 자리에서 “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, 산업안전 규제가 강화됐지만, 건설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채 처벌 위주로만 운영된다면 사고예방 효과 없이 자칫 범죄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”며 “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”고 요청했다.

이에 대해 노 청장은 “서울지역 건설업계가 건설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”며 “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”고 화답했다.

김희용 기자 hyong@

<©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>



경제부

김희용 기자

hyong@dnews.co.kr

- 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' 앱을 다운받으시면
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- 명품 콘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!